

북스

Books



그림 읽어주는 여자 한젼마의 한국 畫人 자취 순례

화가의 집을 찾아서·그 산을 넘고 싶다

이즈음 충북 청원의 '운보의 집'은 형형색색 장미가 한창이다. 김기창 화백이 말년을 보낸 이곳은 사람의 손이 닿은 듯, 만 듯 조금은 쇠락한 느낌이 더 좋은 곳이다. 그가 머물렀던 기와 집과 찻집, 전시설을 둘러보고 운보와 화가였던 아내 박래현의 무덤까지 둘러보고 나면 화가 김기창을 꼭 곁에서 만나고 온 기분이 든다.

아주 오랜 기간 사람들은 유희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들고 우리 국토를 훑었다. 새 책을 쓰면서 유희준의 책과 김병종의 '화첩기행'을 염두에 두었다는 한젼마가 펴낸 '화가의 집을 찾아서'와 '그 산을 넘고 싶다'는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화가의 자취를 찾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동무가 될 만한 책이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로 많은 사람들을 '미술'의 세계로 인도한 한젼마는 6년 전 이 책을 기획하고 화가들의 흔적을 찾아 전국을 누볐다. 그림은 전시장에서만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묘사, 기념관, 그가 거닐었던 마을 등 작가와 인연을 맺은 모든 장소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미술창고 뒤흠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지역별로 작가들을 묶었다. (서울·경기 작가를 다룬 3권은 내년 초 출간)

'그 산을 넘고 싶다'는 김환기·오지호·윤두서·채용익·허련·허백련 등 6명의 전라도 출신 작가와 제주도에서 화업을 쌓은 이종섭·김정희를 다루고 있다.

'오지호 화백의 광주 지산동 초가를 찾아 작품 '남향집'의 따뜻한 기운을 받은 그녀의 발길은 오해백이 그렸다는 텃화를 보고자 원출사로 이어진다. 허련이 정착한 진도 운림산방을 찾은 그녀는 초의선사와 김정희같은 훌륭한 스승과 현종의 지원을 받은 허련을 보며 든든한 후

원자의 지원 아래 훌륭한 작품을 생산한 서양 미술의 거장 루벤스를 떠올린다.

그녀는 무등산에서 허백련의 숨결을 느낀다. 의재미술관과 계오르규·무이재 립자가 다녀가기도 했던 노화가의 청빈함이 느껴지는 춘실헌 등을 둘러보며 그녀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등산을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랐다.

'화가의 집을 찾아서'는 김기창·이응노·장욱진·박상광·이인성·박수근 등 충청도·경상도·강원도 출신 작가 12명의 자취를 담았다.

책에서는 이응노가 나해석으로부터 사들여 머물렀던 곳이지만 지금은 폐가가 되어버린 쓸쓸했던 충남 예산 수덕사 여관, 술에 영혼을 적셔 아주 작은 집들을 그렸던 장욱진의 정말 작은 용인 작업실, 이인성의 작품에 등장하는 장소가 거의 옛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행복했던 대구 계산동 상당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월북작가인 이쾌대의 흔적을 찾아 떠난 거제포로수용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화비(畫婢)로 기억되는 박수근의 묘, 어른 두 사람이 누우면 딱 잘 것같은 제주 이종섭의 방 등도 그녀의 발길이 머문 곳이다. 그밖에 담림미술관, 임립미술관, 기당 미술관 등 책속에 소개된 화가 이외의 작가들의 미술관 소개는 보너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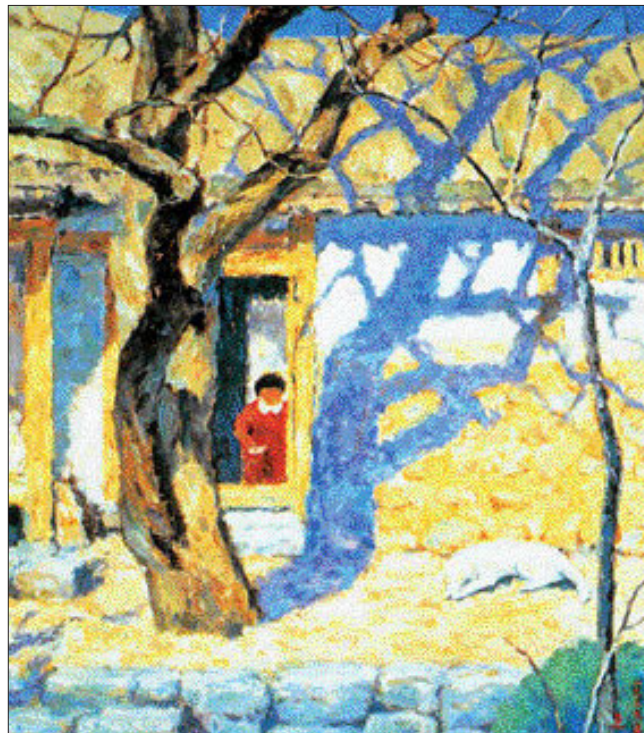
책에는 화가들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와 함께 역시 화가이기도 한 그녀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다. 책 표지 이미지는 장욱진·유영국·김환기·이종섭의 작품을 패러디한 그녀의 작품에서 따왔다.

죽음의 누앙스가 담겨 있다는 장욱진의 마지막 작품 '밤과 노인' 등 책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이야기 속 작품의 도판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샘터·1만원, 1만2천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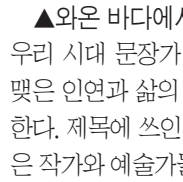
충북 청원 '운보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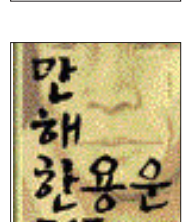
오지호 작 '남향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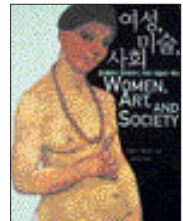
▲타이밍(전 3권)=인터넷 최고의 인기 만화가 강풀이 지난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미디어 다음에 연재했던 '미스터리 심리 썰링물'이다.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귀신과 초능력이 등장하는 인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풀어낸다. <문학세계사·각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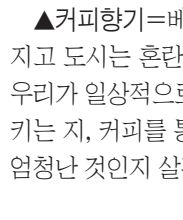
▲와온 바다에서 차를 마시다=소설가 한승원, 시인 곽재구 등 우리 시대 문장가 11명이 차 한잔에 대한 추억을 그려냈다. 차로 맺은 인연과 삶의 철학을 그들의 문장 실력만큼이나 술술 이야기한다. 제목에 쓰인 와온바다는 전남 순천 해평면에 있는 바다로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다. <예문·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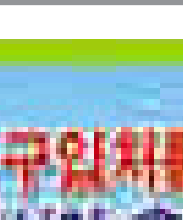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평전='님의 침묵'으로 서정적인 문학세계를 보여준 시인이자 3·1운동을 주도한 독립 투사였던 만해 한용운의 평전이다. 김삼용 독립기념관장의 현대인문시리즈 네번째 편으로 만해의 파란만장한 삶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시대의창·1만6천500원>



▲여성, 미술, 사회=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류 미술사에서 폄하되어온 여성 미술가와 작품을 조명한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여성들의 작품을 함께 다루며 사회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시공아트·3만5천원>



▲설록 흠즈의 유언장='설록 흠즈'라는 명탐정을 탄생시킨 코난 도일의 오마주로 읽힐 법한 추리소설로 코난도일의 소설기법과 등장인물을 그대로 등장시켰다. 잔인한 연쇄 살인사건을 소재로 설록 흠즈의 죽음을 뛰어넘는 예지력이 공개된다. <현대문학·1만2천원>



▲대략! 한자의 정석='표리에 피리를 무는 영어' 등으로 인기를 얻었던 오리 선생 한자림이 술술 넘어가는 한자책을 펴냈다. 한자를 이루는 부수의 이해를 통해 한자의 발음과 의미를 '대략' 감 잡아 생활에 활용한다는 저자의 설명처럼 간단한 원리 이해로 한자를 깨운다. <디지인하우스·1만원>

조선 문인들의 삶 그리

'조선의 문화공간' 4권

이종목교수 펴내

조선시대 문인들의 삶을 그린 책이 나왔다. 서울대 국문학과 이종목 교수가 쓴 '조선의 문화공간'(전 4권)은 제목에서 언급된 것처럼 문인들과 그들이 누렸던 공간의 문화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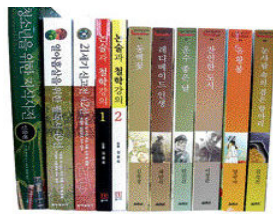


책은 저자가 지인들과 가진 모임의 잡지 '문헌과 해석'에 10여년 간 연재했던 글을 모으고 보태 펴낸 것이다. 1권은 조선 개국에서 명종 무렵까지, 2권은 선조에서 광해군까지, 3권은 광해군과 인조대 그리고 17세기 문인들, 4권은 18~19세기 문인들을 다루고 있다.

책과 함께 옛 사람들이 좋아하던 '와유(風遊·방 안에서 산수화를 걸어놓고 상상으로 산수유람을 즐기는 것)'를 떠나보자. 글 사이사이에 큼직한 사진들이 시원스럽게 편집돼 있어 독서의 즐거움을 더 한다. 사진은 사진작가 권태균씨가 찍었다. <휴머니스트·각 권 2만2천원 내외>

책읽는 알찬 여름방학

논술관련 도서 등 청소년 책 잇단 출간



여름방학을 맞아 논술 관련 도서 등 청소년들을 겨냥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열린원은 '논술 한국문학'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에 나온 1차분은 '동백꽃 외'(김유정), '레디메이드 인생 외'(채만식), '운수 좋은 날 외'(현진건), '잔인한 도시 외'(이청준), '유황불 외'(양귀자),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외'(김소진) 등 6권. 2차분으로 김동진, 김동리, 염상섭, 박태원, 황순원, 박완서, 이태준, 황석영 등의 작품이 나올 예정이다.

김대경(서울 양재고 국어교사), 이권우(출판평론

가), 정영휴(인천 대건고 철학교사) 등 현직 교사와 평론가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친절한 작품 해설과 수능 및 통합형 논술에 맞는 문제, 예시답안 등을 실었다.

'논술과 철학강의'(전 2권·통나무 펴냄)는 도율 김용욱이 EBS 논술강의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을 50회에 걸쳐 운영하면서 쌓아낸 논술 주제를 담아낸 책이다. 1권에서는 '논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로 시작하는 논술의 제명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했으며, 2권에서는 본격적인 철학 강의를 펼치고 있다.

'21세기 신고전 42선'과 '열아홉살을 위한 필독서 49선'(이상 동아일보사 펴냄)은 '동아일보 논술·교양 시리즈'의 하나로, 각각 50회 분량의 동아일보 연재물에서 발췌한 작품을 실었다. '21세기'는 빅토리 위고의 '레미제라블',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 신고전 42권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논술 주제를 던지는 방식으로 꾸며져 있다. '열아홉살을 위한'도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 필독서 49권을 분석했다.

'청소년을 위한 지식사전-인물편'(랜덤하우스 중앙 펴냄)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주요 위인들을 엄선해 이들의 성장과정과 인간적인 면모, 주요 업적 등을 정리한 책이다. 각 인물 별로 전문가가 쓴 글을 독일의 역사학자 마르틴 짐머만 교수가 엮었다. 저자의 국적에 따라 다소 '게르만스러운' 면이 있지만 위인들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부족함이 없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DSLR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모험 시킨 시공을 선보인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러분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11월 14일 출시

α

서울구입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삼성디지털시티 1111호 (02) 3463-4800

부산구입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9, 롯데백화점 1111호 (051) 522-3000

대구구입처: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9, 롯데백화점 1111호 (053) 514-3000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피드기

심식용피드기, 모내기용피드기, 밭갈이용피드기, 파종용피드기, 이앙용피드기

062) 363-4800

삼야상권

● 심식용피드기 ● 모내기용피드기 ● 파종용피드기 ● 이앙용피드기 ● 수확용피드기 ● 비료살포기 ● 수확농기계 ● 소형농기계 ● 소형트랙터